

김주삼 (2009). 아편전쟁과 동아시아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중일의 대응방식 분석. 아시아연구, 11(3), pp.88-92 발췌

Ⅲ. 중국의 대외인식과 영향

1. 근대화과정에서 대외정세변화에 부적응

1839년에 발발한 아편전쟁은 영국과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최초로 충돌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아편전쟁을 통해 당시 청조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이기도 했다. 영국은 아편전쟁 이전부터 국가체제를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여 국가형태를 형태적 조직형태로 이미 탈바꿈하였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도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확보함으로써 19세기 자체가 영국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규모와 국제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당시 중국의 국가체제와 법, 제도, 경제구조는 서구열강과는 너무나 다른 후진적인 봉건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영국의 축적된 자본과 국력은 지난 비인회의 이후 확립된 비인체제를 통해 견고함이 유지되었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개척한 해외식민지로부터의 부의 축적은 더욱 향상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발전은 영국 이외의 서구열강 국가들에서도 변화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반도를 차지하여 식민지 지배능력을 구축한 상태에서 중국에 노련하게 접근을 하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17세기 청조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시베리아지역 진출 극동지역으로 남하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 영국처럼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태평양지역에 대한 주도적인 입장도 아니었다. 미국은 1848년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를 확보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와 상하이(上海)를 잇는 태평양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신속하게 캘리포니아 서부를 개발하고 급속한 자본주의체제로 발전시켜 미국이 중국시장과 태평양에 위치한 일본시장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경쟁적으로 해외상품시장쟁탈전에 뛰어들었다.(唐繁興, 2002)

중국은 서구열강의 치밀한 동아시아진출전략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는데, 이는 그때까지 전통적 역량에 대한 과신과 자만이 주요 요인이었고, 서양문물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특히 아편전쟁이 발발한 이후 1860년 베이징 조약 체결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적 구조개혁에 대한 개혁의지와 발달된 서양문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청조 몰락을 재촉하게 되었다.

2. 중국개국과정에서의 소극적 수용

아편전쟁 당시 중국은 황제에 통치되는 봉건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제정치는 역사적 흐름에도 대외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겪게 된다. 중국은 당시 전국을 18

개 성(省)으로 구분하여 각 성을 제후들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전략적으로 중국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서구열강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중국이 일본과는 다르게 나타난 점에 대해, 프랑스 동양외교사 거장인 피에르 르누벵의 당시 분석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피에르 르누벵, 1988).

첫째, 중국인은 외국인을 경계하고 경원시 하며, 기술면에서 외국인의 우위를 인정하나 과거 서양문명보다 찬란했던 전통적 중국문화에 더 집착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인은 자만심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불신이 많았다는 것이다. 둘째, 기술문화를 무시하는 전통적 유교사상이 지배적이었고, 외국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모방심이 일본인들보다 훨씬 부족했다. 셋째, 중국인들은 평화적이었으나, 군사적 활동에는 흥미나 존중을 하지않았으며, 서양인에 대한 반응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애국심도 미미했다.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자리잡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기는 하였지만, 잠재적 배외심에 그친 채, 일반적으로 격렬한 항의행동은 하지 않았다. 넷째, 일본개혁세력이 무사계급이 주도한 반면 대부분의 관리들은 외국의 영향이 중국인의 생활에 전파할 변혁을 적대시 하였다. 다섯째, 중국관리들은 개혁사상에 문을 닫아놓고 있었다. 그들의 지적 형성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는 중국전통적 현인의 숭배와 과학의 경멸 그리고 중국의 철학과 중국의 지적우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배적 사상들은 공사(公私)관계를 명확히하는 서양 사상을 상서롭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제하였다. 여섯째, 청조 정부의 개혁에 대한 수동적 태도와 황위를 계승하는 황제들의 청정부 권한행사 주권자 부재와 황권절대주의 존속이었다. 서구열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제도 개편과 변혁보다는 전통적체제를 유지했는데, 이는 결국 중국근대화 역행하였다.

3. 국제조약체결과 영향

1) 청조의 혼란

중국은 아편전쟁의 패배로 영국 난징조약(南京條約, 1942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일방적으로 전승국 영국에 강제된 불평등조약이었다. 영국은 아편전쟁이 있기 전까지 광둥성에 있는 무역항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역을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중국의 쇄국정책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아편전쟁이 있기 전까지 영국에 대한 중국의 대외인식은 위협이 될 정도로 간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영국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다. 난징조약체결은 영국과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서구 열강과 중국과의 국제조약까지 이어지는 기화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불평등한 국제조약이었다. 난징조약체결은 국내외적으로 두 가지 변화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아편전쟁 패배가 중국인들이 서구열강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자괴감을 갖게 하면서 이후 청조에 대한 무능에 대한 반란이 일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2) 서구열강의 중국침략 본격화와 혼란

아편유입은 중국의 은(銀)유출을 1820년부터 확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편수입은 약 1840년대에 18,000상자인 것이 그 규모는 1850년대 전후에는 48,000상자로 수준을 초과하여 절정인 188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上田信, 2005).

국제적으로는 아편전쟁을 통해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난징조약을 받아내자 그동안 중국진출에 열망했던, 프랑스, 독일, 러시아, 네덜란드, 미국 등의 국가들도 중국과의 교역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난징조약을 통해 아편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충분히 받아내고, 5개 무역항을 확보하였다. 이후 텐진조약에서는 난징조약(南京條約)보다 더 많은 10개의 무역항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영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 황제가 있는 베이징에 영국 공사관을 주재시킴으로써 중국 시장의 종속화를 확고히 다졌다.